

현대·기아차 '쾌속 질주'

현대차

1~5월 내수 32만3126대...역대 두번째 30만대 돌파
개소세 인하·신차 인기...수입차 부진 반사이익도
쏘나타 '베스트 셀링카'...그랜저 4만3916대 판매 1위



'팔리세이드'

현대·기아차의 올해 국내시장 판매량이 지난 2000년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1~5월 내수 판매는 현대차가 32만3126대, 기아차가 20만465대 등 모두 52만3591대다. 이는 200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51만7900대)를 17년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1~5월 내수 판매는 현대차가 2002년에 33만5704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두번째로 17년 만에 3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22만1700대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고, 2000년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16년 이후 4년 연속 1~5월 누적 20만대 이상 판매를 이어갔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의 국내 1~5월 누적 점유율(수입차 포함)은 72.6%로 2013년(7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70.4%) 이후 5년 만에 70%를 넘겼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과 함께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신차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수입차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도 한몫했다.

현대차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 쏘나타가 1만3000대가 팔리며 베스트셀



링카에 오른 것을 비롯해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 쏘타페와 팔리세이드, 제네시스 G90, 기아차 K9 등 신차 효과로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차종별 판매량은 그랜저가 4만6790대로 가장 많았고, 포터 4만3916대, 쏘나타 3만8469대, 싼타페 3만5896대, 팔리세이드 2만8375대, 카니발 2만7927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월 평균 판매량이 10만4718대를 기록해 이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판매량은 지난해 기록(125만2800대)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했고,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인 현대차 베뉴와 기아차 셀토스, 제네시스 GV80 등 신차에 대해 기대감도 커진 상황으로 내수판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1~5월 내수 20만465대...4년 연속 20만대 이상 판매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셀토스 등 신차 매출 기대감
현대기아차, 연간 판매량 사상 최고치 경신 '주목'



'THE K9'

중고차 살 때 미납통행료 바로 확인

도로공사-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이력 클린' 협약



지금까지 판매 직전 차주가 미납한 통행료에 대한 독촉장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발급되는 등 다름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 서비스 도입으로 이런 다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중고차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중고차 판매원이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현재까지 미납부 상태로 남은 통행료는 약 158만건, 39억여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7일부터 중고차 매매 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기차 무선충전 특허 출원 활발

10년간 1036건...중소기업 13.6% 비중 확대

전기차 증가와 함께 기술적 과제가 되는 배터리의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충전의 불편함 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무선 충전 기술이 떠오른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특허는 모두 1036건에 달했다. 출원인은 내국인이 전체 건수의 85.9%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58.4%로 출원을 주도했지만 그린파워, 아모센스, 올레브, 코마테크 등 국내 중소기업 비중도 13.6%로 점점 높아진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자기 공진 방식 관련 출원이 4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무선충전 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늘며 전체의 42%를 점유했다.

무선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 공진 방식,

자기유도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자동차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 중 자기 공진 방식은 자기유도방식과 비교해 10m 이내의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아 주목받는다.

국내 한 중소기업은 도로 위에 설치된 무선충전 설비를 달리는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고 대금결제 시스템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특허로 출원했다.

필요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제어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시스템도 출원됐다.

전기차 특허청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앞으로는 급속충전과 도로주행 중 충전 등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여름 맞이 무상 점검

전국 9개 서비스센터 28일까지 '썸머 캠페인'

마세라티는 광주서비스센터 등 전국 9개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2019 썸머 캠페인'을 실시한다.

마세라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센터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면 더욱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유상 수리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마세라티 측은 설명했다. 액세서리 및 마천다이즈 구입 시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무상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



는 모든 고객에게 마세라티 차량 방향제를 증정한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이번 2019 썸머 캠페인은 장거리 운행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 시즌을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행을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